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19년 4월 25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인구 1.2억 명 (2018) 	정치체제 연방공화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GDP 1.2조 달러 (2018 ^e) 	1인당GDP 9,807달러 (2018 ^e) 	통화단위 Peso (Ps) 	환율(\$기준) 19.24 (2018 평균) 

-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석유, 은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GDP 규모(구매력평가) 세계 11위이자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임.
- 중남미의 대표적인 원유수출국으로 상품수출과 재정수입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지리적 인접성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형성된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는 멕시코 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취임한 AMLO 대통령은 사회적 지출의 확대 및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전 행정부의 친시장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포퓰리즘에 기울어지려는 움직임 보여 투자자의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있음.
-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낳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이 사회안정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됨.
- 미국과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미국 Trump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인 보호무역 강화 및 강경한 이민규제 정책 추진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상태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경제과학및기술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정('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투자보장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협정('07), 원자력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9,720,804	10,932,591	11,458,233	자동차부품,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수입	3,695,371	4,407,479	5,090,068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05건, 5,318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8	3.3	2.9	2.1	2.0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7	2.8	6.0	4.9
재정수지/GDP	-4.5	-4.0	-2.8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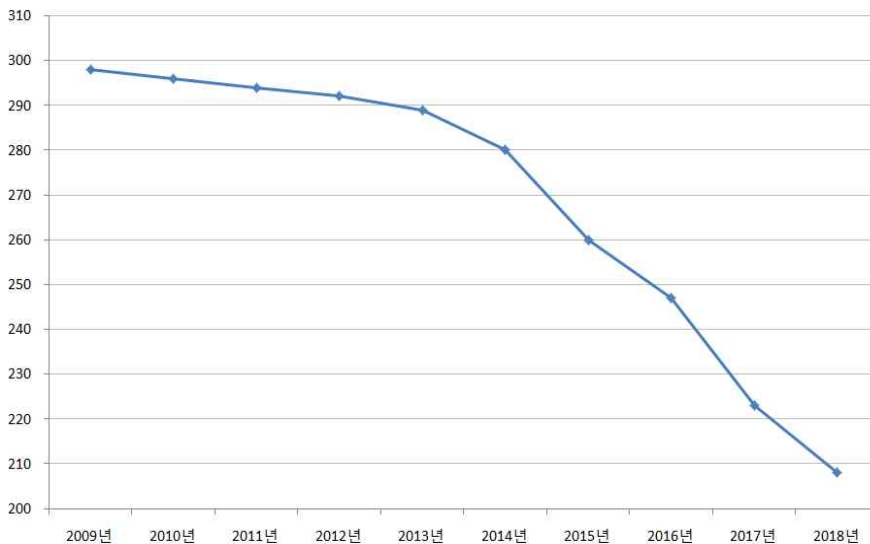
자료: IMF, EU

2018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2%로 정체

- 멕시코 경제는 석유산업 및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와 미국의 경제상황 및 대외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의 저유가 및 원유생산량 감소,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2016년 이후 성장률이 2%대에 정체됨.
- 석유 부문은 2017년 기준 멕시코 상품수출의 5.8% 및 재정수입의 16.7%¹⁾를 점유하였음. 최근 10년간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평균 생산량 2009년 298만 배럴 → 2018년 208만 배럴) 멕시코 경제에 중장기적 타격이 예상됨.²⁾
- ※ 미국은 2017년 멕시코로부터 2.12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멕시코에 1.94억 배럴 이상의 정유제품(멕시코의 내수용 가솔린의 50%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³⁾

최근 10년(2009~18년) 간 멕시코의 일일평균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만 배럴/일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 IMF Country Report - Mexico (November 2018) No.18/307, p.43(재정수입, Table 2), p.46(상품수출, Table 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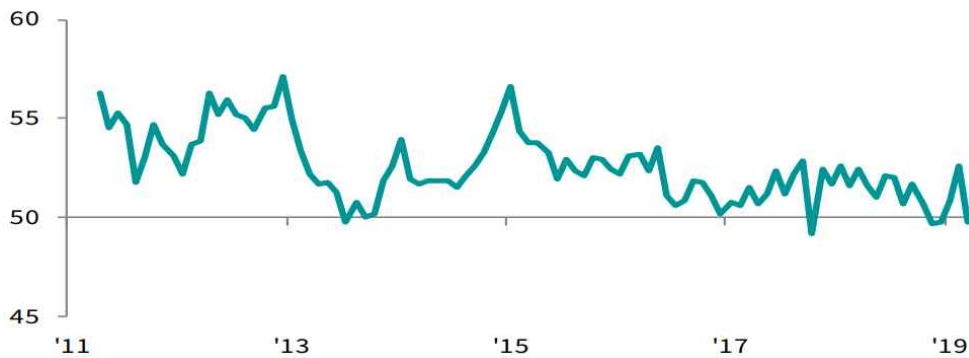
2) IEA Oil Market Report (Table 3. World Oil Production).

3) www.export.gov/article?id=Mexico-Upstream-Oil-and-Gas (조회일자: 2019.4.16.)

국내경제

- 2017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지진 피해⁴⁾ 여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1%로 전년(2.9%)대비 하락하였음. 2018년에는 국제유가가 현저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및 대선 실시 등이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과 거의 동일한 2.0%의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4분기에 건설 부문의 침체 및 광업 부문의 생산 감소로 성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정권 교체 전망(실제로 정권 교체 달성)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투자 결정 보류로 이어진 것도 4분기 성장 둔화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에도 멕시코 경제는 세계경기 침체 우려 고조, 이민 문제로 인한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 및 국경 폐쇄 위협, 마약 카르텔 등의 살인·폭력 등으로 인한 치안 문제와 공무원 부패 문제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및 투자 심리 위축,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 미만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멕시코의 2019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1.6%⁵⁾, EIU는 1.9%⁶⁾, IHS Markit은 1.7%⁷⁾로 각각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회의적 전망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멕시코의 대미 수출 위축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멕시코 중앙은행은 최근 공표한 1분기 경제보고서에서 금년도 및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금년도 전망치는 1.1~2.1%, 내년도 전망치는 1.7~2.7%로 각각 제시하였음.
-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 구매자관리지수(PMI)⁸⁾는 2018년 12월 49.7에서 2019년 1월 50.9, 2월 52.6(13개월래 최고치)으로 연속 상승하다 3월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며 49.8로 하락하여 1분기 평균 51.1을 기록, 2018년 4분기 평균(50.0)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산업 부문의 위축을 나타내고 있음.

2019.3월까지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 PMI 추이



자료: IHS Markit

4) 2017년 9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 남부 지역에서 규모 8.1 및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약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

6) EIU Country Report - Mexico (March 2019).

7) IHS Markit, Monthly Economic Outlook - Mexico (21 March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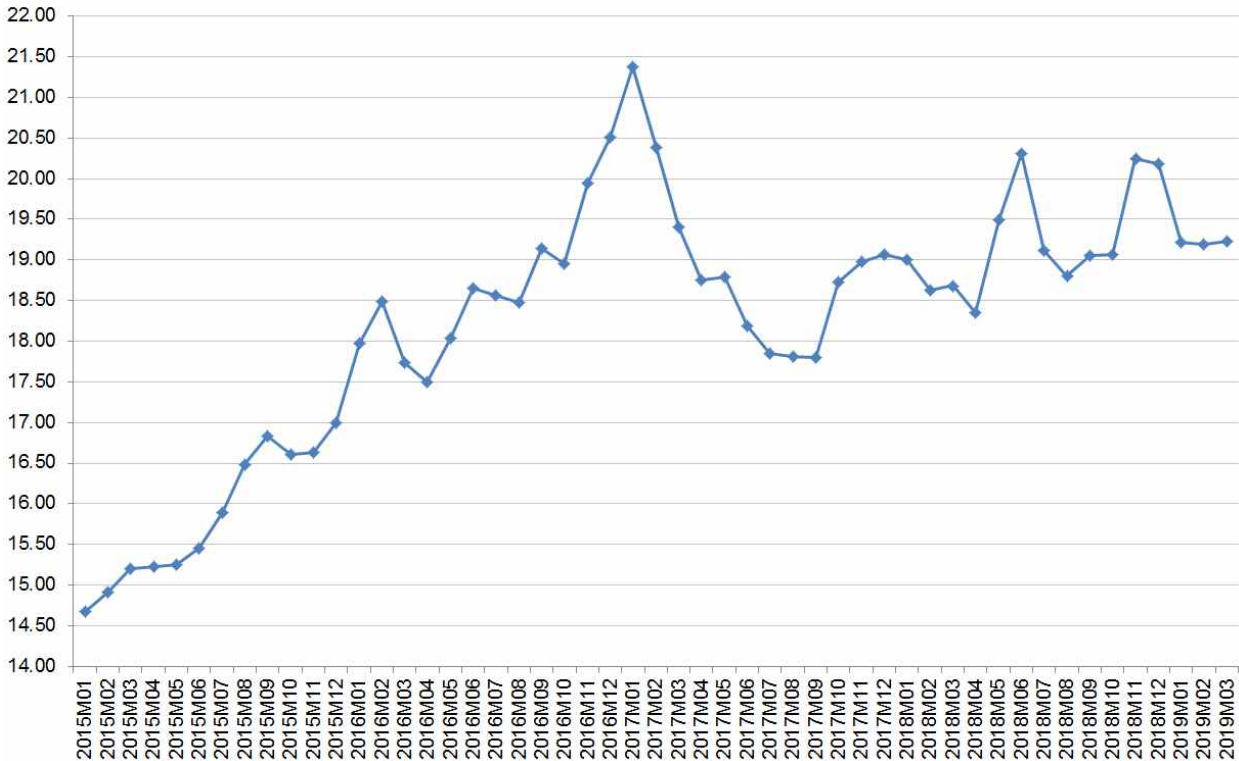
8) Purchasing Managers' Index.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의 수치로 정량화한 지표. 통상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국내경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에 근접

- 멕시코 중앙은행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범위를 2~4%로 설정(목표수준 3%)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을 목표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음.⁹⁾ 그러나 2017년에는 환율 상승,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 조치¹⁰⁾와 지진 여파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0%로 급등하였음.
- 2018년에도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연평균 환율이 19.24로 2017년(18.93) 대비 상승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들어서도 미국의 경기 둔화 → 대미 수출 감소 → 외환보유고 축소로 인한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 페소화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추이(월평균, 2015.1월~2019.3월)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9) 2015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연료가격 하락 및 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2.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페소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8%를 기록하였음.

10) 멕시코 정부는 2017년 1월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리터당 가격은 프리미엄 휘발유(고급유종) 17.79페소(인상률 20.1%), 마그나 휘발유 15.99페소(인상률 14.2%), 디젤 17.05페소(인상률 16.5%)로 인상됨. 가격 인상 결과 프리미엄 휘발유 5리터 가격은 멕시코의 일일 최저임금(1월 80.04페소 → 12월 88.36페소)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국내경제

꾸준한 재정개혁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과거보다 개선

- 취약한 세수기반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부문의 세입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3년 세제개혁을 통한 비석유 부문 세수 증대와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과거보다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음.
- 멕시코 정부는 세수 증대와 더불어 주요 재정수입원인 국영 석유회사(PEMEX)의 경비지출 삭감 등 재정 건전화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로 원유 부문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1%로 현저히 축소되었으나, 2018년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일부 지방의회 선거 등 주요 선거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른 대선 전후의 정부지출 증가로 동 비중이 -2.3%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12월 취임한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약칭 AMLO)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사회적 지출 및 공공투자의 증대, 휘발유 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에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대 중반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재무상태 악화는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악재로 작용

-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PEMEX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 추세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채규모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38억 달러가 증가, 2018년 말 기준 중남미 국영 석유기업들 중 최대 규모인 1,06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부채 급증은 과중한 법인세 부담, 직원들에 대한 연금기금 부채의 누적,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 발생, 대규모 자본투자 요구, 그리고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류절도 범죄로 인한 손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멕시코의 유류절도 범죄 발생은 매일 42건 수준으로, 이로 인해 PEMEX측이 입는 연간 피해액은 정부 추산 약 30억 달러임.
-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1월 29일 PEMEX가 과도한 부채규모로 인해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것으로 평가하여, 동사의 투자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등급 직전인 BBB-로 1단계 강등하고 투자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1월 30일 금년 상반기 말까지 일단 PEMEX의 투자등급을 기존의 Baa3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에 AMLO 대통령은 2월 15일 자금난에 처한 PEMEX에 대해 39억 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 및 16억 달러의 매출보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구제금융 패키지는 연금부채 인수, 현금 투입, 감세 등으로 구성됨. 매출보전은 멕시코 정부가 진행 중인 '석유 절도와외의 전쟁'으로 인한 PEMEX의 석유제품 판매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

국내경제

- ※ AMLO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를 근절코자 지난 1월 주요 송유관의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소나 유통센터 등에 군을 투입하는 등 '석유 절도와의 전쟁'을 선언¹¹⁾하였으며, 송유관 대신 유조차로 유류를 운송함에 따라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PEMEX의 매출에도 지장이 발생함.
- 그러나 S&P는 3월 4일 멕시코 정부의 PEMEX 재정건전화 계획이 PEMEX의 필요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고, 국영기업인 PEMEX가 정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재정수지 관리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PEMEX의 투자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PEMEX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수년간 최소 2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PEMEX의 경영 악화와 이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구제금융 패키지 및 매출보전 제공으로 멕시코의 유류생산 차질 및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됨.

최근 PEMEX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

- S&P : BB(2017.8.23.) → BB-(2018.8.31.) → **B-(2019.3.4.)**
- Moody's : A3(2014.6.19.) → Baa1(2015.11.24.) → **Baa3(2016.3.31.)**
- Fitch : BBB+(2017.8.3.) → BBB+(2018.10.19.) → **BBB-(2019.1.29.)**

11) 당국은 마약 카르텔 등과 연계된 전문적인 석유 절도 조직이 송유관을 파손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24,848	-30,492	-24,252	-19,401	-22,186
경상수지/GDP	-1.9	-2.6	-2.3	-1.7	-1.8
상 품 수 지	-2,790	-14,597	-13,065	-10,990	-13,882
상 품 수 출	397,650	380,976	374,304	409,775	450,942
상 품 수 입	400,440	395,573	387,369	420,765	464,824
외 환 보 유 액	185,184	168,373	168,746	164,892	165,197
총 외 채	442,272	426,435	422,657	443,685	467,300
총외채잔액/GDP	33.6	36.4	39.2	38.3	38.2
D.S.R.	8.1	11.7	14.3	10.0	10.3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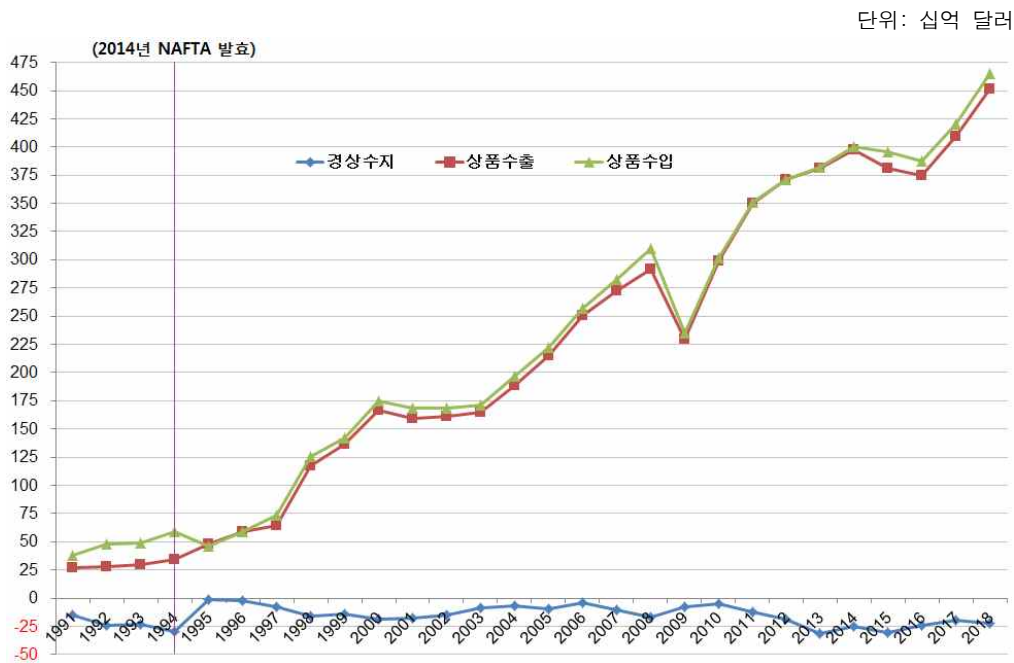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상이전수지 흑자 확보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안정적 유지

- 1994년 1월 NAFTA 발효로 상품수출액은 1994년 전년대비 15.3%, 1995년 전년대비 39.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후 2001년, 2009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입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1991~2018년 중 1995년,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이며, 경상수지는 1991~2018년 중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다만,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거주자 송금액(연간 GDP의 약 2%) 유입에 기반하는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 흑자 확보를 통해 2014~18년 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 경상이전수지 흑자(2018년 326.8억 달러)는 외국기업의 투자이익 해외송금 등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2018년 322.8억 달러)를 상쇄하며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를 억제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경상이전수지 흑자도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1.7%)과 거의 동일한 -1.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폐소화 약세(즉 환율 상승)는 수출품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자동차, 전자기기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을 동반하였으며, 원유 생산·수출량 감소까지 더해져 2018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138.8억 달러로 전년(-109.9억 달러)대비 26.3% 증가하였음.

대외거래

- 한편, 아직까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멕시코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USMCA 발효가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수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및 미국의 이민규제 강화로 인한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 등은 경상수지 악화의 잠재적 위험으로 상존하고 있음.

멕시코의 경상수지 및 상품 수출입 추이(1991~2018년)



자료: IMF BOPS.

꾸준한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

- 멕시코는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8년 말 기준 월평균수입액의 3.6개월을 상회하는 외환보유고(1,652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고는 통화 약세에 대응한 환율방어 등으로 인해 2014년 말 1,852억 달러에서 2015년 말 1,684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18년 말까지 매년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IMF와 신속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¹²⁾ 협약을 계속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환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IMF는 2009년 4월 멕시코에 대해 처음으로 315억 SDR(약 470억 달러) 규모의 FCL을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계속해 오고 있음.¹³⁾

12) IMF 회원국 중 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하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일시적 금융위기에 직면하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IMF로부터 특별한 조건 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유동성을 공급받는 제도. 신청국이 FCL의 신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대출제도(Precautionary Credit Line, PCL)를 이용해야 함.

13) IMF는 2017년 11월 30일 멕시코에 대해 2년 기한 623.89억 SDR(약 860억 달러) 규모의 FCL을 승인하였으며, 2018년 11월 26일 멕시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액규모를 534.76억 SDR(약 740억 달러)로 조정하였음. (자료: IMF Press Release No.18/440, November 27, 2018)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외채규모, D.S.R. 등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2018년 말 기준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각각 38.2% 및 10.33%로 추정되고, 단기외채잔액의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도 2018년 말 36.6%로 추정되어 외채상환 능력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낮은 단기외채 비중(2018년 말 총외채의 12.9% 및 외환보유액의 36.6%),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 제공(2019년 4월 현재 약 740억 달러), 성공적인 해외채권 발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외채상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18년 말 53.5%(공공외채는 GDP의 24.3%)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구조적취약성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편중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 성장한 멕시코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수출품도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 등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세계은행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기준 멕시코의 전체 수출액의 80.0% 및 전체 수입액의 46.4%를 점유¹⁴⁾하였음.
- 자동차 관련 수출이 전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22.7%이며 이중 약 75%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과의 관계 경색 및 교역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¹⁵⁾
- 멕시코의 NAFTA 역내 교역액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339.28% 성장하여 2017년 기준 멕시코 전체 교역액의 65.39%를 차지하였음. 특히 미국과의 교역액이 62.84%인 반면, 캐나다와의 교역액은 2.55%에 불과하여 과도한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995~2017년 멕시코의 교역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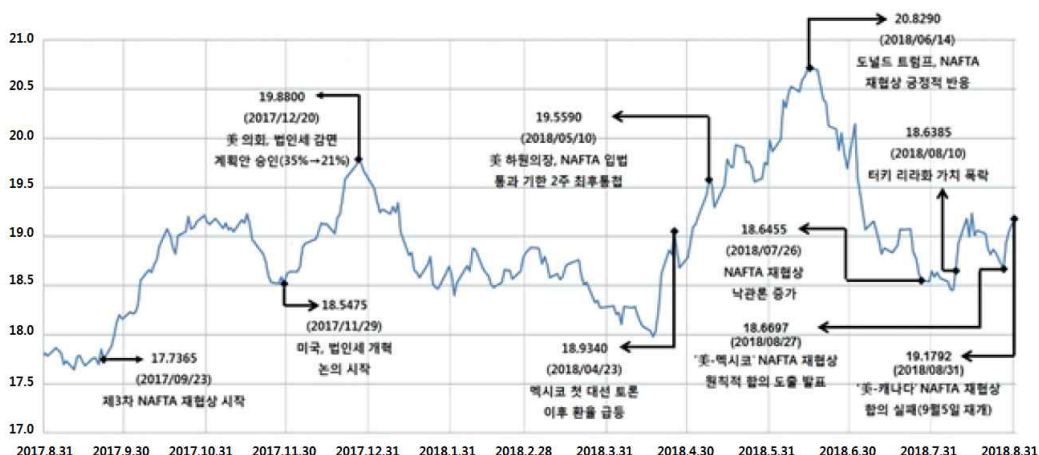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5년	2017년	비중(2017년)	증가율(1995→2017)
전 세계	151,993.65	829,845.60	100.00	445.97
NAFTA	123,536.88	542,667.12	65.39	(339.28)
(미국)	(120,175.23)	(521,502.82)	(62.84)	(333.95)
(캐나다)	(3,316.65)	(21,164.30)	(2.55)	(529.58)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멕시코 입장에서 보는 USMCA 출범”(2018.10.6., 원자료 출처는 Global Trade Atlas)

- 한편,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 폐소화는 Trump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NAFTA에 관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표를 할 때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왔음.

멕시코 폐소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 변동 추이 (은행 일일 매매기준가격)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멕시코 입장에서 보는 USMCA 출범”(2018.10.6.)

14) WIT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MEX, 조회일자: 2019.4.4.)

15) WTO(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Country=MX&Language=F)

구조적취약성

- 아울러 미국은 2017년 기준 대 멕시코 FDI 유입액의 46.8%를 점유하여 대 멕시코 투자국들 중 부동의 1위를 지켰으며, 연간 GDP의 2%에 달하는 해외송금액 유입의 상당 부분이 미국 거주 자국민으로부터의 송금액임.
- 2017년 국가별 대 멕시코 FDI 비중은 미국 46.8%, 캐나다 9.1%, 스페인 9.0%, 독일 8.0%, 일본 5.5% 등임.¹⁶⁾
- 이에 멕시코 정부는 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외의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예측이 매우 뿌리 깊어 높은 대미 의존도를 단기간 내에 경감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AFTA가 USMCA로 개편됨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 미국 Trump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미국 우선주의 노선 추진의 결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NAFTA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2018년 9월 30일자로 합의함에 따라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해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USMCA는 서명국이 사후 협정 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나 자국의 경제환경이 변한 때 일방의 요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향후에도 USMCA가 자국의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인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산업계에는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됨.
- USMCA의 유효기간은 16년이고 6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검토 결과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10년간 서명국들이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USMCA는 폐기됨.
- 또한 USMCA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서명국 중 특정 국가가 시장경제국이 아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추진할 경우 초기에 이를 다른 서명국들에 통보해야 하며, 다른 서명국들은 이를 검토하고 동의할 권리를 갖는다"는 특별조항이 삽입되었음.
- 만약 특정 1개 서명국이 시장경제국이 아닌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2개 서명국들은 6개월 전의 통보를 거쳐 USMCA를 종료하고 USMCA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특별조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과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삽입된 독소조항으로,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동 조항에 따라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한 중국과 양자간 무역협상을 할 수 없음.
- USMCA는 서명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적 요구에 따른 신규 조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여타 서명국의 보다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불만으로 인해 의회 비준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16) Santander TradePortal (en.portal.santandertrade.com/establish-overseas/mexico/foreign-investment)

구조적취약성

- 한편,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개혁 추진에 대하여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이 USMCA 제11장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을 바탕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불확실성의 잠재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음.
- NAFTA의 제20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는 USMCA에서도 유지되나, 제11장의 ISDS는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만 석유·가스, 통신,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 한정하여 진행키로 개정되었음.

USMCA의 자동차 관련 조항으로 인해 멕시코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NAFTA와 USMCA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포괄)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정으로, 특정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여타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역내가치비중(RVC, Regional Value Contents) 상향 조정
 - 승용차 및 경형 트럭(light truck, SUV 포함)은 NAFTA 체제하의 62.5%에서 75%까지, 중형 트럭(heavy truck)은 NAFTA 체제하의 60%에서 7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자동차 부품은 승용차와 경형 트럭은 핵심부품/주요부품/보완부품에 따라, 중형 트럭은 핵심부품/보완부품에 따라 각기 기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
 -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역내 생산비중도 70%로 대폭 인상
 - ② 고임금 노동가치비중(LVC, Labor Value Contents) 규정 신설
 - 자동차 생산의 일정 비중을 최소 16달러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담당토록 규정함. 동 비중은 2023년까지 승용차의 경우 40%, 트럭(경형·중형 모두)의 경우 45%까지 매년 상향 조정됨.

승용차 기준 RVC 상향 조정 계획¹⁾

기준일	자동차 전체	핵심부품	주요부품	보완부품
2020년 1월	66%	66%	62.5%	62%
2021년 1월	69%	69%	65%	63%
2022년 1월	72%	72%	67.5%	64%
2023년 1월	75%	75%	70%	65%

승용차 기준 LVC 상향 조정 계획²⁾

기준일	자동차 전체	핵심부품	주요부품	보완부품
2020년 1월	30%	15%	10%	5%
2021년 1월	33%	18%	10%	5%
2022년 1월	36%	21%	10%	5%
2023년 1월	40%	25%	10%	5%

1) USMCA가 2020년 1월 이전에 발효될 경우이며, 2020년 1월 이후에 발효될 경우 발효일 기준 + 1년마다 인상 / 순원가기준 적용 가정(거래가격기준 적용 시 매년 10%씩 상승)

2) USMCA가 2020년 1월 이전에 발효될 경우

자료: KOTRA.

구조적취약성

- 분석가들은 상기 조항들의 적용이 생산단가 상승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일부 소형차 모델들은 가격경쟁력의 현저한 상실로 수출용은 물론 내수용으로도 더 이상 북미 지역에서 생산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멕시코 통계청에 의하면 멕시코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약 2.3달러에 불과하여, LVC 규정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원유산업에 대한 의존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

- 멕시코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재정수입 및 수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원유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다만, 원유 관련 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3년 35.4%에서 2017년 16.7%(약 437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약 13%에서 2017년에는 5.8%(약 236억 달러)로 감소함.
- 멕시코 정부는 연간 헤지 프로그램(1년 수출물량에 대해 풋옵션 계약 매수)을 통해 유가하락 위험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한편, 통신·에너지 시장 개방, 재정수입 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 동(4위), 은(6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11위(중남미 2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6위(중남미 1위) 수준임.
- 아울러 멕시코는 1.2조 달러를 초과하는 GDP 및 1.2억 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보유한 경제대국이며, 15~64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구조, 경제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지정학적 위치 활용으로 인접시장 접근 유리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총연장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USMC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 체결한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중남미 전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3위 상품교역국(14.3%, 5,570억 달러)으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상품 수출·수입 규모는 각각 미국 상품수출의 15.7%(2위) 및 상품수입의 13.4%(2위)를 차지하였음.

정책성과

前행정부는 에너지, 전기, 통신 등 부문에서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

- Nieto 前대통령의 행정부는 주요 산업의 체질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2013년 12월), 통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비율을 확대하는 방송통신개혁법(2014년 7월) 등을 제정하였음.
- 정부는 멕시코만 육상 및 해상광구를 Round 1~3으로 세분화하고, 외국의 석유메이저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에게 석유광구 입찰 참여를 개방하였음. 2015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총 83개 광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자는 ExxonMobil, Chevron, China Oil, BP, PEMEX 등임.

2019.3월말 기준 멕시코 정부의 유전광구 입찰 개요 및 진행 현황

- 발주처 : 국가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CNH)
- 대상 : 멕시코만 육상 및 해상 광구 160여개
- 입찰 현황
 - Round 1.1 (2015. 9월) : 14개 광구 중 2개 낙찰 (낙찰률: 14.3%)
 - Round 1.2 (2015.11월) : 9개 광구 중 3개 낙찰 (낙찰률: 33.3%)
 - Round 1.3 (2016. 8월) : 25개 광구 중 25개 낙찰 (낙찰률: 100%)
 - Round 1.4 (2017. 5월) : 10개 광구 중 8개 낙찰 (낙찰률: 80%)
 - Round 2.1 (2017. 9월) : 15개 광구 중 10개 낙찰 (낙찰률: 66.7%)
 - Round 2.4 (2018. 1월) : 29개 광구 중 19개 낙찰 (낙찰률: 65.5%)
 - Round 3.1 (2018. 3월) : 35개 광구 중 16개 낙찰 (낙찰률: 45.7%)

정책성과

- 독점 시장이던 통신 산업의 경우 AT&T(미국), Virgin Mobile(영국) 등 유수의 해외 통신기업들이 진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 증가 등도 Nieto 前대통령의 주요 정책성과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Nieto 前대통령 재임 중 멕시코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2013년 11월 조세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주식처분소득 및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목 신설 등의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GDP 대비 세수(tax revenue)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17년 16.2%로 4.2%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33.6% → 34.2%)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음.¹⁷⁾

AMLO 대통령의 좌파 행정부는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포퓰리즘에 기울어지려는 경향을 보여 투자자 신뢰 하락

- 2018년 12월 출범한 새 행정부의 정책은 AMLO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사회적 지출의 확대 및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전 행정부의 친시장 정책기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젊은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 보조, 노년층을 위한 연금 지급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 중임.
- AMLO 대통령은 중남미 최저 수준(미 달러 환산 기준)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사 간의 단체교섭 강화, 명목 최저임금의 16% 인상 명령,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소재한 기업들의 임금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음.
- 2014년 단행된 에너지 부문의 개혁 결과 석유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조치에 반대했던 AMLO 대통령은 2018년 12월 취임과 더불어 석유 부문에 대한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역할 증대를 위해 신규 유전광구 입찰을 2021년 말까지 3년 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180만 배럴 수준인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을 2023~24년까지 240만~250만 배럴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본인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내용임. 한편, 새 행정부는 PEMEX의 역할 증대를 위해 PEMEX의 신규 유전 탐사·채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80억 달러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획도 추진 중임.
- 이에 멕시코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의 Hector Moreira Rodriguez 커미셔너는 3월 7일 워싱턴 DC 소재 Mexico Institute 산하 Wilson Center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 조치는 향후 10년간 일평균 원유 생산량을 당초 계획 대비 30만 배럴 감축시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유 부문 수입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였음.¹⁸⁾

17) OECD Data (data.oecd.org/tax-tax-revenue.html#indicator-chart, 조회일자: 2019.4.19.)

18) 앞서 2018년 12월 前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정부 이양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 광구 입찰을 2년 연기할 경우 멕시코의 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027년까지 246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는 당초 계획대로 유전 광구 입찰을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307만 배럴보다 약 20% 더 적은 규모임. 아울러 천연가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광구 입찰 진행시 일평균 생산량은 2028년 70억 입방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입찰을 2년 연기할 경우 그보다 6.4억 입방피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자료: www.hellenicshippingnews.com/delays-of-mexico-oil-gas-auctions-will-slow-revenue-production-growth-commissioner)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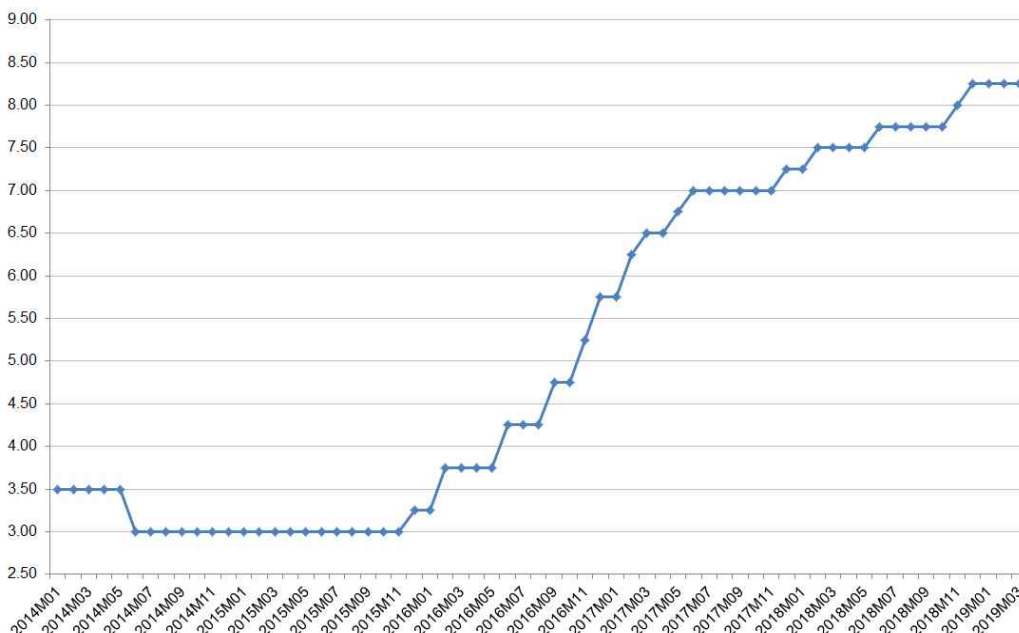
- 아울러 PEMEX를 재정적 위기에서 구하려는 정부의 현 계획안(39억 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 및 16억 달러의 매출보전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PEMEX의 역할 강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PEMEX의 채무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 PEMEX가 멕시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PEMEX의 채무지속가능성은 멕시코의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증가와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 성향, 전 정권의 부정부패 또는 이념적 방향을 이유로 기존의 정부 발주사업 중 일부에 대한 계약 변경 추진 등은 투자자로 하여금 멕시코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음.
- 2018년 10월 국민투표 결과 전체 공정의 약 3분의 1이 진행된 상태였던 13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사업을 부패와 혈세 낭비 등의 이유로 전격 취소한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관리정책 실시

- 멕시코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및 폐소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처럼 일관된 통화정책은 변동환율의 이점 및 재정관리 강화 등과 더불어 IMF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멕시코 중앙은행은 환율방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중앙은행 정책금리(central bank policy rate)를 거듭 인상한 결과 2015년 11월 3.0%에서 2018년 12월 8.25%(현행)로 2.5배 이상 상승하였음.

멕시코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월별 변동추이(2014.1월~2019.3월)

단위: %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정책성과

기업경영여건은 세계 중상위권이나, 일부 분야에서는 하위권 수준

-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여건 보고서(Doing Business 2019)에서 멕시코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54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들 중 1위에 올랐으나, 이는 전년(49위)대비 하락한 순위임.
- 자금공급(Getting credit) 부문에서는 8위로 최상위권에 올랐고 청·파산(Resolving insolvency, 32위)과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43위) 부문에서도 양호한 순위를 기록한 반면,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103위)과 납세(Paying taxes, 116위) 부문에서는 하위권에 그쳤음.

정치동향

2018년 7월 총선 결과 좌파 AMLO 대통령 당선

- 2018년 7월 1일 실시된 총선(대통령, 상·하원의원, 9개 주 지사 선출)에서는 2014년 7월 10일 공식 등록된 신생 좌파 정당인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약칭 MORENA)의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약칭 AMLO) 후보가 53.1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AMLO 후보는 수도 멕시코시티 및 31개 주, 재외국민투표를 통틀어 Guanajuato 주(2위 득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 득표를 기록하였음.
- 아울러 MORENA는 상원 128석 중 55석(42.97%), 하원 500석 중 189석(37.80%)을 획득하고 멕시코시티 시장 선거 및 9개 주(전체 31개 주 가운데 2018년에 주지사 선거를 실시한 주) 중 4개 주 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였음.
- 이로써 MORENA와 좌파인 노동당(PT), 우파인 사회결집당(PES)의 연정인 Juntos Haremos Historia(통칭 MORENA-PT-PES)는 상원 69석(53.90%), 하원 306석(61.20%)을 획득하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점유, 새 행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PT는 상원 6석 및 하원 61석, PES는 상원 8석 및 하원 56석을 각각 획득하였음.
- 다만, 연정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함에 따라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AMLO 대통령은 선거 당시 복지 확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전 행정부의 에너지, 재정 및 교육 등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칭취 및 재검토, 국경장벽 설치를 비롯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 멕시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과거 65년간 여당 지위를 유지해온 제도혁명당(PRI)의 몰락

- 직전 여당이자 과거 65년간이나 여당 지위를 유지해 오면서 멕시코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착화를 낳은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은 2012년 총선에서는 상원 57석, 하원 212석을 획득하였으나, 2018년 총선에서는 상원 13석 및 하원 45석 획득으로 몰락하였음.
- 이에 따라 PRI와 중도파 신동맹당(PNA), 중도우파 멕시코녹색당(PVEM)의 연정(통칭 PRI-PNA-PVEM)도 상원 21석 및 하원 63석 획득¹⁹⁾에 그쳐 상원 38석 및 하원 131석을 획득한 Por Mexico al Fente 연정²⁰⁾에도 밀려 원내 제3세력으로 위상이 추락하였음.²¹⁾
- Nieto 前대통령은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한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측근들의 부패 혐의²²⁾, 집권기간 중 범죄율 상승 및 저조한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취임 초 56%에 달했던 지지율이 임기 말에는 20%대로 하락하였음.

19) PNA는 상원 1석 및 하원 2석, PVEM는 상원 7석 및 하원 16석을 획득하였음.

20) 우파 국민행동당(PAN), 좌파 민주혁명당(PRD), 좌파 시민운동(MC)의 연정.

21) PRI는 2000년 총선에서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 약칭 PAN)의 Vicente Fox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내준 데 이어 2006년 총선에서는 원내 제3당으로 전락하였음. 2009년 하원 선거에서는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하고 2012년 총선에서는 Enrique Peña Nieto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정권을 탈환하였으나, 2018년 총선에서는 다시 원내 제3당으로 내려앉았음.

22) 영부인의 고가 주택 부정거래 의혹, 브라질 오테브레시社로부터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314만 달러), PRI 소속 의원들의 비리 혐의 등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사회동향

부정부패 만연으로 대규모 사회적 비용 및 국가경쟁력 손실 발생

- 만성적인 정경유착 스캔들로 대표되는 멕시코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낳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8)에서 멕시코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전년(135위)보다 3단계 하락한 138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부패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중남미 30개국 중에서도 26위로 하위권에 그쳤음.
- 멕시코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4년 35점에서 매년 1점씩 하락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문제가 심각) 2018년 28점에 그쳤음. 참고로 전체 1위 덴마크는 88점, 중남미 1위 우루과이는 70점을 얻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제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서 멕시코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46위로 전년(51위)대비 순위가 상승하여,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칠레(33위)에 이어 2위에 올랐음.
- 부문별로는 시장규모(Market size)에서는 11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노동시장(100위)과 제도(Institutions, 105위)는 하위권에 그쳤음.
- 특히 제도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언론 자유(120위),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 발생(130위), 경찰 신뢰도(138위), 조직범죄(139위) 등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여, 범죄 및 공권력의 부정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평가됨.

심각한 수준의 치안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정 지속

- 세계적으로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 거대 마약조직과 정부 간의 충돌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에 기인한 심각한 수준의 치안 불안은 고질적인 사회불안 요소임.
- 멕시코 공공치안집행국(SENSP)에 따르면 2018년 중 멕시코 내 피살자 수는 2017년(28,866명)보다 15.5% 증가한 33,341명²³⁾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 UN 통계 기준(2016년) 멕시코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도 19.26명²⁴⁾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²⁵⁾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지난 3월 21일의 SENSP 발표에 의하면 올해 1~2월 중 의도된 살인(intentional homicide)의 희생자 수는 5,649명으로, 일평균 피살자는 1월 92명 및 2월 99.8명으로 집계되었음.
- 아울러 멕시코 비정부기구인 "안전과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3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50개 도시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조사하여 '2018년 가장 폭력적인 10대 주요 도시'를 선정한 결과 멕시코의 5개 도시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음.²⁶⁾

23) mexicodailynews.com/news/homicides-are-the-highest-number-on-record (2019.1.22.)

24) UNODC (dataunodc.un.org/crime/intentional-homicide-victims)

25) 엘살바도르 82.84명, 온두라스 56.52명, 베네수엘라 56.33명, 벨리즈 37.60명, 브라질 29.53명, 과테말라 27.26명, 콜롬비아 25.50명 등임.

26)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 기준 1위 티후아나(138.26명), 2위 아카폴코, 4위 빅토리아, 5위 후아레스, 6위 이라푸아토가 모두 멕시코 도시 들임. 2위는 카라카스(베네수엘라), 7위는 과야나(베네수엘라), 8위는 나탈(브라질), 9위는 포르탈레자(브라질), 10위는 볼리바르(베네수엘라)로 집계되어 멕시코 5개, 베네수엘라 3개, 브라질 2개 도시들이 10위권을 석권하였음.

사회동향

- 또 다른 멕시코 비정부기구인 “경제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에 의하면, 2018년 폭력으로 인해 멕시코의 경제적 손실²⁷⁾은 국민 1인당 41,000페소로 GDP의 24%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멕시코 정부는 부패사건 전담 특별검찰청 및 특별법원 신설, 경찰조직 개편(주 정부 중심 통솔권 단일화) 추진, 국내치안법 제정 등으로 부패 및 치안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가시적 성과는 부진한 상태임.
- Nieto 前대통령은 2017.12.20자로 군의 국내 치안활동 개입을 합법화하는 국내치안법을 공포하였으나, 멕시코 대법원이 2018.11.15.자로 국내치안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AMLO 대통령은 대신 개헌을 통해 육군·해군·연방경찰을 통합한 국가수비대 창설을 제안하였음.

고질적인 석유 절도 범죄로 인해 지난 1월 송유관 폭발 참사 발생

- 1월 18일 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이달고 주 트라우엘릴판의 송유관에서 유출되는 석유를 인근 주민들이 양동이 등으로 훔쳐가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음.
- 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에 의하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800여명이 유출되는 석유를 담으려고 몰려들었던 것으로 확인됨.
- 이달고 주 정부는 3월 1일 폭발 당시 68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으며, 그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81명 중 66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13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였음.
- 석유 절도는 멕시코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로, PEMEX는 석유 절도의 80%가 이달고·베라크루스·타마울리파스 등 6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PEMEX가 운영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내거나 내부 직원의 공모 아래 정유소와 유통센터 저유소 등지에서 절취되는 석유 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멕시코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석유 절도범들이 석유 절취를 위해 모두 14,894개(하루 평균 41개)의 구멍을 전국의 송유관에 뚫은 것으로 집계하였음.
- 멕시코 정유 판매업자 전국연합은 이렇게 절취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기름 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공식 주유소의 4배를 넘는 수치인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불법 기름 판매업자들은 국도변은 물론 고속도로변에서 주유기까지 갖추고 절취한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27) 이 손실액은 살인사건 발생으로 초래되는 인적자원 손실, 장례비, 사건 수사 및 범인의 검거와 처벌에 소요되는 국가적 비용 등을 합산한 것으로, 피해자가 살해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임.

국제관계

NAFTA 재협상, 국경장벽 설치 등 Trump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미국과 갈등 지속

- Nieto 前대통령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 밀매 등 치안 문제, 불법이민 문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7년 미국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Trump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NAFTA 재협상이 실행에 옮겨져 USMCA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미국 일방주의를 내세우고,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 규제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Trump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한 장벽 건설²⁸⁾ 및 멕시코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²⁹⁾ 폐지를 공언하면서 멕시코 정부에 장벽 건설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등 멕시코와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
- Trump 대통령은 4월 4일 멕시코 정부가 중미 국가들로부터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난민 행렬인 캐러밴(caravan) 문제에 대해 향후 1년 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USMCA가 모든 서명국 의회에서 비준되어 발효된다 해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앞서 3월 29일 Trump 대통령은 멕시코 당국이 캐러밴을 포함하여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을 즉각 차단하지 않으면 4월 첫째 주에 미국-멕시코 간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간 교역이 일일 17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경 폐쇄는 500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음.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통상반경 확대 노력

- 멕시코는 1994년 NA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6개 국가/지역협력체들과 12건의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역협력체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 외에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일본, 이스라엘 등 15개 국가/지역협력체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³⁰⁾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터키, 요르단, 파라과이 등과 FTA 체결을 협상 중이며, 한국, 싱가포르 등과는 FTA 재협상을 논의 중임.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28) Trump 대통령은 2017.1.25자로 미-멕시코간 국경장벽(길이 약 3,200km)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8.2.12자 2019회계연도(2018.10.1~2019.9.30) 예산안 발표를 통해 국경장벽 건설에 1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혔음.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장벽 건설을 위해 요구한 금액(57억 달러)보다 훨씬 부족한 금액(13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맞서자 동 예산안을 거부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 발생하였음. Trump 대통령은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86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의회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29)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미성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불법이민한 청년층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수혜 청년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Trump 대통령은 2017. 9월 DACA 폐지를 공식 추진한 바 있음.

30)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

국제관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자동차 무역협정 개정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 및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대미 의존도 개선 기대

- 멕시코는 2002년 9월 27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³¹⁾ 4개국과 자동차 분야 무역협정인 ACE-55를 체결(2003년 1월 15일자로 4개국 전부 발효)하였음. 동 협정은 이를 대체할 만한 FTA의 체결 전까지 지속됨.
- ACE-55에 따라 4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쿼터(FOB 기준)를 적용받던 멕시코는 2006년 아르헨티나, 2007년 브라질과 자동차 수입 쿼터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2015~19년 중 수입 쿼터를 다시 적용하였음.
- 2019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ACE-55 개정에 합의한 결과 3월 19일부로 브라질과는 자동차 FTA가 발효되고, 아르헨티나와는 점진적인 수입 쿼터 증대가 개시되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대미 의존도³²⁾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3월 19일 브라질과의 자동차 분야 FTA 발효로 양국 간 승용차 및 상용차, 자동차 부품 수출입에 대해 관세 및 쿼터 적용이 면제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트럭, 버스 수출입에 대해서도 관세 및 쿼터 적용이 면제됨.
- 아르헨티나와는 역시 3월 19일부로 3년 간 양국간 수입 쿼터를 유지하되, 첫해에는 직전년도 대비 10% 상향하고 이후 2년 간 매년 5%씩 증가하기로 합의하였음.³³⁾

3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경제협력체로, 1995년 1월 역내 모든 관세장벽을 철폐함. 2012년 7월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나 2017년 7월부터 민주주의 복구시까지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임.

32) 2018년 멕시코 자동차 수출의 75.6%가 미국에 집중되었음(자료: KOTRA).

33) 직전년도(2018.3.19.~2019.3.18.) 수입 쿼터는 637,497천 달러이며, 이후 701,247천 달러(2019.3.19.~2020.3.18.) → 736,309천 달러(2020.3.19.~2021.3.18.) → 773,124천 달러(2021.3.19.~2022.3.18.)로 증대됨.

외채상황태도

외채구조는 중장기 중심, 외채상황태도는 양호한 편

- 2018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은 총 194.89억 달러(단기 60.97억 달러, 중장기 133.92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이력은 중장기 2.2억 달러로 전체 승인금액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00년 만기 달러화 채권(2010년, 26.8억 달러) 및 100년 만기 영국 파운드화 채권(2014년, 10억 파운드) 발행 경험을 기반으로 2015년 세계 최초 100년 만기 유로화채권(2015년, 15억 유로)을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자의 평판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18.10)	3등급(2017.10)
S & P	BBB+(2019.03)	BBB+(2017.07)
Moody's	A3 (2017.04)	A3 (2016.03)
Fitch	BBB+(2018.10)	BBB+(2018.02)

국제신용평가3사, 멕시코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되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

- OECD는 2005년 10월 이후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계속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멕시코에 대하여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Fitch는 2018년 10월 30일 1일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되, 등급 자체는 일단 기존의 BBB+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Fitch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멕시코시티 신공항 사업의 취소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AMLO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관련된 '부정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S&P도 지난 3월 1일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되, 등급 자체는 일단 기존의 BBB+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S&P 역시 멕시코시티 신공항 사업 취소 등 투자자의 신뢰를 감소시킨 정부 정책은 GDP를 줄이고 우발적인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에너지 분야 참여를 제한하려는 AMLO 행정부의 움직임이 경제성장 전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Moody's는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3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공항 사업 취소는 멕시코의 향후 공공정책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음.

- 멕시코 경제는 최근의 저유가 및 원유생산량 감소,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2016년 이후 성장률이 2%대에 정체됨. 2018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대선 실시 등이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2.0%의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2% 미만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거주자 송금액에 기반하는 경상이전수지 흑자 확보에 힘입어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대통령의 좌파 행정부는 석유 부문에 대한 국영 석유기업의 역할 증대, 포퓰리즘적 정책 성향, 전 정권하에서의 정부 발주사업 중 일부에 대한 계약 변경 등을 추진하여 멕시코의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음.
-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 등을 활용해 미국과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최근 Trump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보호무역 및 강경한 불법이민 정책 등과 관련해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환보유고 및 IMF의 신속적 신용공여 등을 통한 유동성 부족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